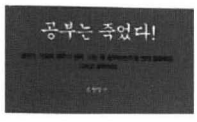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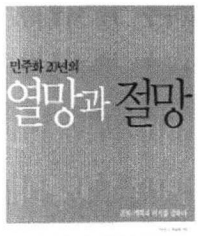

《소설 팔십년대, 구십년대, 이천년대》
임철우 외 지음 | 민족문학연구소 엮음 | 생각의 나무 | 각 316, 396, 488쪽 | 값 각권 12,000원, 12,000원, 14,000원

민족문학작가회의 내 젊은 비평가들의 모임인 '민족문학연구소'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의 문제적 작품과 평론을 함께 묶었다. 팔십년대 작가들로는 임철우, 방현석, 김인숙, 정도상의 작품이 실렸고, 그들의 당대 작품과 2000년대의 작품을 함께 묶어 작가의식의 변전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구십년대는 공선옥, 공지영, 김종광 등의 작가들을 통해 90년대 소설의 개인성과 일상적인 욕망, 여성 서사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천년대는 박민규, 천운영, 이명랑 등 개성 있는 작가를 통해 현실과 대면하는 그들의 흥미로운 상상력에 초점을 맞춘다.

《시를 써야 시가 되느니라》
방민호 외 지음 | 예옥 | 352쪽 | 값 15,000원

이 책은 미당이 가장 왕성한 시작활동을 펼치던 시절에 펴낸 시론서들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추린 것으로, 서정주 · 정지용 · 백석의 시를 포함한 현대시 100여 편이 각 항목마다 선별 수록되어 있다. 현재 국문과 교수이며 시인,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 명의 저자(방민호, 박현수, 허혜정)가 기획, 편집하고 해설을 붙임으로써 시를 쓰고자 하는 이라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입문서이다.

《서로주체성의 이념》
김상봉 지음 | 길 | 324쪽 | 값 20,000원

김상봉 교수의 책들은 항상 도발적이다. 《도덕교육의 파시즘》에서 이런 것을 느낀 독자라면 이 책에서도 그런 단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 혁신을 위한 서론'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김 교수는 '철학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책에서 줄기차게 천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 철학의 '정신적 빈곤'을 통렬한 자기비판과 함께 지적한다. 그리하여 김 교수는 "자기의 세계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절실하다고 통박한다.

《한국형 개방전략》
최태욱 엮음 | 창비 | 428쪽 | 값 28,000원

이 책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이 어떤 개방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지를 분석한 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를 다각도로 분석한 다음, 한미 FTA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FTA의 다양한 목적과 동기,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전략, 미국 자본주의의 세계화전략과 한미 FTA 등이 먼저 소상히 소개되고 있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한국 제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투자부진, 서비스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경고,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살펴본다.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지음 | 후마니타스 | 364쪽 | 값 16,000원

이 책은 경향신문의 〈진보개혁의 위기 – 길 잃은 한국〉 시리즈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책이다. 민주화 이후 갈수록 참담해져만 가는 민중의 삶을 생생히 보여주면서 그 동안의 민주화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였으며, 왜 가난한 사람들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는지,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있는지 등을 묻는다.

《보이는 세계는 진짜일까?》
조용현 지음 | 우물이 있는 집 | 332쪽 | 값 13,000원

SF영화를 매개로 세계, 영혼, 인간에 걸치는 철학의 제 문제를 검토하는 책이다. 저자는 "철학의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는 데 SF만큼 적합한 장르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철학 고전에나 등장할 추상적인 문제가 SF영화 속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예사롭게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제대 교수인 저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개설하여 출간한 책이라 이해를 돕는 현장감 넘치는 설명들이 배치되어 있다.

《공부의 발견》
정순우 지음 | 현암사 | 424쪽 | 값 15,000원

이 책은 표류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왜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는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 이는 한 개인이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이 책에서는 조선조의 지성사에서 밝은 빛을 발하고 있는 현인들을 찾아 공부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있다.

《뉴스는 반만 믿어라》
노광준 지음 | 진리탐구 | 359쪽 | 값 12,000원

1년 전 온 나라를 폭풍 속으로 몰아간 황우석 사태. 그리고 폭풍의 진원지였던 한국의 언론. 그런데 당시 언론보도의 진위여부를 따져보니, '황우석에게 난자를 강요당한 연구원' 보도는 사실무근. '내가 널 걷게 해주마' 보도는 맥락의 왜곡, 〈PD수첩〉은 제보자 의존 편파방송이었다. 언론은 원천기술이 있다는 게 밝혀진 순간에도 '원천기술은 없다'라고 보도했고, 바꿔치기가 사실도 드러날 때에도 '바꿔치기는 없었다'라고 했으며, 자기 자신의 잘못은 덮고 남의 잘못만 크게 부풀려 때려잡는 전형적인 '권력'의 모습을 보여줬다.

《모든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김승웅 지음 | 김영사 | 284쪽 | 값 9,500원

부제 '서울 회억, 1961~1984'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저자가 보낸 서울의 시간과 공간, 사람 사이를 내달리며 사라진 것들을 복원하고 기억한다. 저자가 말한대로 이 책은 시대정신을 논하거나 도도한 물결을 타고 넘는 고담준론의 역사서가 아니다. 5 · 16 군사정변이 났던 1961년 대학에 입학한 시점에서부터 1970~1980년대 숨가쁘게 현장을 뛰어 다녔던 기자생활까지 서울서 무엇을 목말라했고 누구를 미워했으며 또 무엇이 되고 싶고 누구와 자고 싶었는지를 기술한 저자의 고백서이다.

《장기려, 그 사람》
지강유철 지음 | 홍성사 | 576쪽 | 값 20,000원

'무소유 삶'을 실천한 장기려 선생의 생애를 담은 평전. 장기려 선생의 일기, 노트, 잡지 기고 글을 참고하면서 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내실있는 평전의 역할을 하도록 엮었다. 긍정적인 평가 중심의 내용에 편중되기 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일어났던 실수와 상처, 고뇌 등이 고루 담겨 있다.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이경분 지음 | 휴머니스트 | 268쪽 | 값 13,000원

'애국가' 작곡자라는 국내명성과 베를린 필하모니,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세계적인 한국인 지휘자라는 국제적 명성 이외 안익태에 대한 평가는 풍족하지 않다. 저자는 그의 생애 중 가장 국제적 활동이 왕성했던 1938년도부터 1944년도까지의 흔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에서 그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을 찾아갔다. 일제침략시기 한 사람의 음악가로서 부딪쳐야 했던 입지적 갈등과 탈출구 모색 등 독일 현지에서의 꼼꼼한 취재와 분석으로 작곡가 안익태가 감추려 했던 6년간의 행적을 추적했다.

《대화》
박완서 외 | 샘터 | 284쪽 | 값 11,000원

박완서와 이해인, 방혜자와 이인호 씨의 대담집. 작가와 수녀시인, 화가와 역사학자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두 사람들이 삶와 인생, 그리고 사회와 시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다. 박완서 작가와 이해인 시인은 인생과 문학이라는 큰 줄거리 안에서 여성으로의 삶, 종교, 죽음 등 인생 전반적인 물음에 깊이있고 친근하며서 거침없는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고, 방혜자와 이인호 씨는 시대에 순응하기 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인생을 개척했던 개인사와 더불어 역사, 예술, 교육에 대한 담론들을 풀어냈다.